

사설

영산재 보존대책 시급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 불교전통무형 문화재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 는 영산회상의 모습을 범용과 법패 등 종교예술로 표현하고 있는 영산재 는 신라 말 진감선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가적 중요행사로 큰 천도식에서 주 로 행해져 왔다.

영산재는 73년 운공, 송암, 벽옥스 남 3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고 87년 영산재보존회가 단체로 무형문 화재 지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광스님과 일음스님이 이 때 인간문화재로 추가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 운공스님, 97년 지 광스님이 입적했으며 최근에는 송 암·벽옥스님이 입적해 현재 팔승의 일음스님 한 분만 유일하게 인간문화 재로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산재보존회는 문화재청 등 정부당국과 협의에 나서 이천 시일에 보유자지정을 신청해 후 계자를 확정토록 하고 범용, 법패 속 의 갖가지 기능들, 이틀테면 상주권 공, 생전에수재, 수륙재 등을 세부적 으로 나눠 문화재 지정을 하는 방안 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영산 재 1세대 스님들의 시연장면을 CD에

담아 보급하고 시연행사도 추진할 계 획이라고 한다.

후계자를 지정해 영산재를 계승해 나가는 일도 필수적이지만 특히 기능 이나 보유자를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 은 아주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역량의 폭이 넓은 인간 문화재를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라면 그 방안이 바람직한 차선책이 분명하다.

영산재는 한 종교의 예술의식이기 이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만큼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식을 새로이 하고 보존대책과 지원에 성의를 아끼지 말 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지 원액을 대폭 늘리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 나서 영산재 보존에 각별한 관 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불교계에서 도 특정 종단이나 스님과 관련한 일 로만 치부하지 말고 종단협의회 등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산재를 불교전통무형문화 재를 보존하지 못하고 인간문화재를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전통과 문화정신을 잃어 결국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승가발전 위한 재가역할

재가연대 중회발전봉사단에서 작성 한 제 146회 임시총회참관 논평 은 조계종 종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례이다. 재가 불자들이 출가 승단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승단의 활동을 살피고 조언 하는 모습은 재가와 출가가 상호 보 완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안 별 로 상세하게 논평을 하면서 중회 운영의 미흡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중회 운영에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 귀중한 논평들만 들여보아도 '적극적 정책 제시의 부족', '중회·준법 준수 및 올바른 적용의 미흡' 등 일반적으로 조계종 종단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들 이 중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회로서는 이러한 지적을 불교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이 중회 쇄신의 기틀로 삼는 대응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재가자들의 전문적인 안목들 을 종단 운영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종단을 운영함에 있어 서 재가자의 몫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요즈음 들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는 재가자들의 종단 운영 참 여의 노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번 중회발전봉사단의 논평과 같은 건 전하고도 중정어린 비판들이 제도권 밖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며, 결국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깨는 불협화음으 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이러한 재가자들의 전문적 인 안목과 충정어린 비판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때 재가자들이 세속 적인 문제에 얽히지 않고 그 본연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종단을 이끌 수 있으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 제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논평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후의 논 평 방식보다는 재가자들에 의해 걸려 진 문제들을 출가자들이 부처님의 법 에 의지하여 심의 결정하는 틀이 이 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출 가자들의 결정을 재가자들이 논평하 는 일은 출가자들의 권위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종단운영에 일정 부분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서 이번의 논평이 시사하는 점을 종 단의 제도개혁으로 회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불교인권운동

네팔인 노동자 천드라 꾸미리 구 롱이 실종 6년만에 경찰당국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불교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회각계 인사 50여명이 6일 세종문화회관 세 종홀에서 국내체류 조선족 대표 100 명을 초대해 가운데 '중국동포들을 위한 위로모임'을 갖고, 조선족 연 수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등 조선족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것도 인권운 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비를 근본 사상으로 태동한 불교이지만 인권운 동에 쏟는 인력과 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 상으로 교계의 인권운동을 이끌어 온 불교인권위원회의 공로대표인 진 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 속된 이후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으 며, 지난 97년 종단협 산하에 설치 된 인권위원회는 현재 활동이 중단 된 상태다.

교계가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각 종단에 실질적인 인권관 련 기구의 설치와 불교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면을 확대해야 한다 는 여론이다. 특히 불교인권위, 실천 승가회, 경불련, 좋은벗들, 불교장기 수후회, 부천외국인노동자마을, 나 눔의집 등 관련단체들이 상호교류와 협력, 연대활동을 통해 역량을 모아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교 인권운 동의 활성화 방안을 탈북동포, 외국 인노동자, 장기수, 중국동포 등의 분 야를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비전향 장기수후원 통일 밑거름”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과 함께 '천상 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오당안지(天上 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라고 선언했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 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 존엄의 일대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 계에서도 다양한 인권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비전향장기수 를 후원하는 불교장기수후원회이다. 비전 향장기수는 10년이상 형을 선고하고 복 역했던 분들이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민가

협 같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양심 수'들로 알려진 공안사범이다.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 당 시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투옥 된 후 많게는 40년 이상을 영 어의 몸으로 살아왔으며, 출소 한 이후에도 고령과 각종 질병으로 힘겨 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불교장기수후원회'의 활동은 이분들 의 아픔을 나누고, 통일을 위한 그분들 의 신념을 알리는 일이다. 또한 아직 우 리 사회에 일각에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미친한 사회인식을 해소하고, 미력하나 마 남북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혜조<실천승가회 인권위원장>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를 후원 하는 일은 특별한 누구를 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여내는 인 권활동이다. 많은 불자들이 관 심을 갖고 동참해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비전향 장기수를 후원하는 일과 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눔의 집', 북한동포를 지원 하는 '좋은 벗들' 등과 같은 활동은 부처 님의 인도주의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다 양한 인권활동이다. 인권운동의 영역이 폭넓고 다양한만큼 많은 불자들이 관심 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탈북동포 국제난민 자격 갖도록”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사무실에서는 버마인 사린의 강제송 환을 반대하는 인권운동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가 본국으로 송환 될 경우 NLD 활동경력 때문에 버마 군 사정부로부터 인권탄압을 받을 개연성 이 높기 때문에 강제출국만은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타국에서 보호받지 못 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처지가 사뭇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특히 중국을 떠돌고 있는 우리 북한동포들은 몇 십 명이 아 니라 수 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중국정부에 의해 복 한으로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

과 두려움으로 일반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 고 있으며 이들의 약점을 이용 한 인신매매나 노동착취 등 인 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 장받지 못하는 고독스런 생활 을 하고 있다.

현재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는 아무 것도 없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해외 구호단체들이 개별적 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그 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보호받도록 하기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분이 노출될 경우 중국정부에 의해 복 한으로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정안숙<좋은벗들 사무국장>



고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감을 건넌 목적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 데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되고 팔려가고 있으니 당사자의 심 정은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같은 동포들의 고통을 걱정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마음들 이 하나씩 모아질 때 북한동포들의 고통 이 해결되고 남북이 화해하는 날이 오리 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불교인들로 확산되어 인권의 사각지대 에서 고립되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한 많은 활동과 마음을 이끌어내는 기 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자비심 베풀자”

최근 한 네살 여성이 실종된지 6년만에 발견된 사건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 해서 무관심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예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얼마 전 한 태국 여성이 친구를 만나 기 위해 지하철 4호선을 탔으나, 약속장 소인 식당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인 안 산역까지 가, 역내 벤치에서 3일동안 있 어야 했다. 그 3일동안 어느 누구도 난 감한 표정의 외국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 았던 것이다.

무관심이란 차별보다도 무서운 것이 다. 예전에 한국인이 피파백, 언어, 문화 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3세계에서 온 외

국인들을 차별하고 배타했다면, 지금 한국인의 모습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 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 처럼 무관심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한국정부와 시민들이 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극우종리 산하에 종교·시민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민간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

정진우<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간사>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 다르다는 이 유로 보내는 차별과 배타, 그 리고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 는 해답을 불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다. 모든 생명의 평등 함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 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동체대비'의 마음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 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이 사라질 때까지 불자 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3월 28일 사찰 신도회장 등 내부자가 해당 사찰의 불교문화재를 밀매하려다 검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계에서 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와 더불어 분실시 엄격한 제재가 가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교문화재 도난·도굴에 내 부자가 연루 돼 있었을 경우 이를 '쉬 쉬'하고, 설사 도난·도굴된 사실을 포착하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도난품 중에서 불하나 조그만 불상 이외에 장정 몇 명이 들어도 옮기기 어려운 석조물·목조물의 경 우 산 속 깊은 곳에서 사찰 관계자도 모르게 옮기기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성보 문화재 도난과 연 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없이 어물쩍 넘긴다 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찰 내부자 모르게 외부 반출 이 불가능하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적극 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집안단속과 문화재 보호

이와 함께 조계종이 실시하고 있 는 '사찰문화재 현황 조사'에서 '복장물'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 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 사찰로부터 복장 조사를 의뢰받아 현장을 방문하면,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복장물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어느 성보보존위원의 말처럼, 복장물 도난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성보 보 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집안 단 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 다. '성보문화재 도난 사건과 현황 조사에 대한 종 단의 '엄격한' 조치' 없이는, 성보문화재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 계 이야기

일타큰스님 / 4x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양언론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x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양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론 신국판 / 값 5,000원
- 김로법론 (5개 1세트) / 값 12,000원